

## 상호신리는 병원발전의 초석



글·김석호 |  
성애병원 기획실장

화창한 가을날, 여유로움을 갖고 따뜻한 차 한잔을 마시고 싶다는 생각을 가져본다.

너무나 바쁘게 지내온 지난 시간이 미처 정리되지 못한 채 혼란스러운 상태로 남아있고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내가 가야할 길을 막고 있는 상황이 차 한잔의 여유가 절실히 필요함을 느끼게 하는 원인이다.

신문이나 TV매체에서 연일 정국의 혼란을 다루는 뉴스가 전해지고, 여기저기서 불만 섞인 목소리가 불거져 나오는 요즘 나 역시 이러한 혼란 속에서 중심을 잃을까 고심하게 된다.

세상의 많은 사건들 속에서 병원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고, 그 어려움은 재정적인 압박을 포함하여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 易地思之(역지사지) 자세로 상대 이해

오랫만에 생각을 정리하며 책상 앞에 앉아 마음을 가라앉히고 보니 병원이라는 조직 속에서 내가 과연 어떤 존재이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조심스럽게 되짚어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계절 탓일까? 갑자기 많은 생각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쏟아져 나오는 느낌이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 참으로 많은 사건과 사연들이 있어왔다. 그 동안 한마음으로 어려운 일들을 지혜롭게 헤쳐나가던 병원 식구들의 모습이 비쳐지면서 입가에 웃음이 돈다. 그러나 노조가 결성된 이후 갈등상황이 계속되어 동일한 조직 내에서도 각자가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로 인해 대립해야 하는 상황은 예전에 함께 하던 사람들이 아닌 낯선 사람들처럼 느껴짐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다.

사실 상대가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그 마음을 읽어 미리 헤아려주고 해결해 줄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의료계와 관련된 여러 상황이 병원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바가 크고, 앞으로도 갖가지 제도가 병원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클 것이라는 예상은 굳이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렇듯 병원이 처한 상황을 놓고 볼 때, 각자가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원하는 것도 다양한 상황에서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현실로 작용하며 또한 강제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큰 상처로 남게됨을 이야기하고 싶다.

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각 기업이 처한 상황이 다르고, 조직마다 특유한 문화가 존재하는 만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신뢰회복은 의사소통의 출발점

그러나 기본적으로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존재한다면 문제의 실마리를 쉽게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우선 경영자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이고 관심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또한 중간 관리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는데, 직원들의 의견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일관된 자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그 의견을 경영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조직을 이루는 구성원 스스로도 자기 중심을 찾고, 권리주장에 못지 않게 의무 이행에도 충실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또한 신뢰를 확립하여 서로가 소외당하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이는 개개인만이 느끼는 감정이 아니다. 직원개개인이 느끼는 소외감은 경영자 역시 느낄 수 있는 감정임을 말하고 싶다. 이는 관심을 서로에게 표현하는 것을 통해 개인과 기업 모두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며, 의견대립을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된다. 이미 문제화된 상황을 빠른 시간 내에 풀어 나가도록 하여, 똑같은 시행 착오를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현재의 위치에서 한걸음만 뒤로 물러서서 앞을 내다본다면 시야는 좀 더 넓어지게 되고, 생각을 한 번 더 해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하므로 한 발 물러서는 여유로움이 기업 내 노사문제가 긍정적인 조직문화를 기반으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조직 안에서 상대방에게 진실된 마음을 표현하고 그 표현을 폭넓게 수용하는 마음을 가져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갔으면 좋겠다.

혼자서 마시는 차 한잔도 나름대로 운치 있고 의미도 있지만 마음을 모으고 웃음을 모을 수 있는 모임 속에서의 차 한잔의 느낌도 이 못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이 가치있는 노력의 결실로 맺혀지기를 바라며 지금 이 시간을 통해 나를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어 내가 너무도 사랑하는 나의 병원에 무궁한 발전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다.  2003